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한 조경분야의 발전방안 연구

- 우간다 진자시 농촌지역역량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

정용조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I. 서론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국가 경제의 재건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국제 다자기구와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으며,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외국 개발원조의 힘이 컸음을 알 수 있다. 1945년 이후 1999년까지 약 127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으며, 1995년 세계은행의 차관 졸업 국이 됨으로써 수원대상국에서 졸업하게 된다(KOICA, 2015; 이단비, 2018).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개발도상국에 본격적인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활동을 전개했다. 우리나라는 한때 수원국이었으나, 현재는 공여국으로 바뀐 세계 유일의 국가로서 2010년에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국제개발협력 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다(이단비, 2018).

우리나라 정부의 ODA 전체 예산은 2017년 약 2.6조원으로 2조원 대를 돌파하였고, 2018년 예산을 약 3조 1,895억으로 확정함으로써 공적개발원조 자금의 3조원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또한 2020년까지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약 4조원까지 증대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ODA 예산과 규모를 늘려나갈 것이라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 보건, 농업, 산업에너지 부문을 중점으로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부문에 서는 건축 및 토목, 산업설비 등의 분야로 지원하고 있다. ODA에서 조경의 영역은 일반 도시 및 광역, 지역의 공간 계획 및 설계, 시공, 유지관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개발 및 지역역량강화 등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때, 개발도상국 즉 수원국의 지역역량 강화와 지역개발 사업은 주로 농촌지역의 경제, 인프라, 교육, 보건 등을 포함한 융복합 개발 사업으로 운영된다(이단비, 2018).

2000년 유엔 새천년선언 채택 이후 주요 공여국들은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등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에 중점을 두어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실시해오고 있다(유병일과 윤보은, 2014).

교육, 보건, 환경 등 타 산업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가진 국내 조경분야의 지속 가능한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국내 시장의 지역적인 한계

를 벗어나 성공적인 해외진출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간다 진자시 농촌지역역량개발 사업의 사례를 통해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조경분야의 영역확대를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발전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있다.

II.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2019년 1월 9일부터 2019년 1월 15일까지 7일 동안 진자시 주변의 농촌지역에 대한 진자주민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빈농지역을 관광농업단지 조성으로 재생시키는 농촌개발 사업에 대한 현황조사와 외국 관광객의 농촌관광 체험을 위한 지역자원조사, 관광농업을 위한 진자시의 정책의지, 환경성 작물재배 가능성, 물리적·인적 인프라 지원체계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우간다 진자시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을 이용하여 주변 농촌지역의 빈부 격차를 줄이고, 형평성 있는 성장을 위한 지역역량 개발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헌조사, 이해관계자 조사, 현지조사, 포커스그룹 인터뷰,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 등이 이루어졌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이론적 고찰

1)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국제개발협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과 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빈곤문제의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법분야적 노력과 행동을 뜻한다.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는 해당 국가만의 문제라기보다 국제사회 전반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역사적 요인 등에 기인하므로 국제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

2. 조사내용 및 결과

1) 이해관계자 조사내용

이해관계자는 사업수혜자, 한국대사관 및 KOICA 한국사무소, 지역관련자(우간다 진자시 공무원, 우간다 동아프리카대학), 수원국 관계자(우간다 농촌개발·관광·무역 등 관련전문가) 등이며, 이를 대상으로 생활환경, 소득, 교육, 기존국제협력사업의 운영 유무, 관리체계, 우간다 진자시 농업기술정보, 새로운 작물의 재배에 대한 이해·선호·사업의 증폭에 대한 이해와 장단점 견해 등을 조사하였다.

2) 현지조사 내용

2019년 1월 9일부터 2019년 1월 15일까지 7일 동안 진자시 주변 농장 답사, 현지 관광서비스업에 대한 수요와 경영현황, 현지조사 목적 설명 등을 실시하기 위해 진자지역 주민 설명회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 내용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 내용은 마을주민들의 기본정보(성별, 나이, 가족 구성원, 직업 등), 농업 생산성, 생활식수, 주택 및 거주환경, 교육, 소득, 채무, 질병,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한 방법,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IV.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진자시는 나일강의 발원지이자 빅토리아 호수 근처의 자연경관이 뛰어나 전 세계 여행자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인식되며, 관광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과 여성들은 일자리가 없어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심각한 실정이다.

둘째, 우간다의 현재 산업구조상 필요로 하는 한국의 지원형태는 농업생산과 가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지원으로 이는 현지 농민들의 동기 부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의식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지원, 교육을 통해 6차 산업으로의 장기

적인 발전과 통합적 농촌기반 인프라 개발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마을주민들과 중앙 및 지방정부는 긴밀한 협조 하에 농촌지역역량개발 사업을 통해 관광도시로 특화, 우간다 진자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주변 농촌지역의 생활향상과 빈부 격차를 줄이고, 형평성 있는 성장을 위한 지역역량개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간다 진자지역은 외자유치 상업지역과 주변 농업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도농통합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농촌지역역량개발 사업이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자연자원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상업지역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 사료된다.

다섯째, 진자지역의 주민들에게 자생력을 높여주고, 주생산업인 농업기반에 대한 가치사슬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중심지역의 관광, 서비스와 함께 우간다 고유의 지역 문화와 연결하는 농촌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

개발도상국의 지역역량강화 원조사업은 농촌지역에 집중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보편적 접근에서의 개발도상국 농촌개발 및 농업 부문을 비롯하여 지역특화사업, 지역주민 교육, 주거환경개선 등 다방면의 농촌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의 조경분야는 관공서 발주물량의 감소와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이윤 감소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느 때보다도 조경분야의 외연확대가 필요한 시점인 바,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발전방안을 통하여 조경업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KOICA ODA 교육원(2015) <http://oda.koica.go.kr>
2. 이단비(2018) 개발도상국의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 분석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유병일, 윤보은(2014) 한국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 발전방안 - 핀란드, 노르웨이의 개발협력전략 비교를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연구 6(3): 187-222.
4.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7) 2017 ODA 백서.
5. KOICA, KAIDEC(2019) 2018 KOICA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현지지역조사 종합보고서. pp. 219-267.